

## 남북 정상 9시30분 악수 ... 한반도 평화의 문 열린다

###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 일정

군사분계선에서 첫 만남 평화의 집에서 환영식·정상회담  
별도의 오찬·휴식 후 공동 기념식 ... 오후 정상회담  
합의문 발표 후 평화의 집 3층 식당서 만찬·환송행사  
비핵화 원칙 합의 ... 종전선언·DMZ 비무장화 등 조치

### 남북정상회담 2·3·4·6·10면

27일 오전 9시 30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문을 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진다.

이날 남북의 두 정상이 일출축발의 화약고로 분류됐던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올 계기를 만들어낼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회담 장소가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으로 결정되면서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땅을 밟는다는 점에서 전환기적 남북 관계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순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 겸 청와대 비서실장은 26일 일산 컨텍스에 설치된 '2018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 9시 30분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 첫 만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판문점 광장과 평화의 집에서 환영식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별도의 오찬과 휴식시간을 갖는다. 김 위원장은 오찬을 위해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돌아간 뒤, 오후에 예정된 공동기념식수 일정에 맞춰 다시 합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다시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문 서명과 발표 등의 일정을 마친 후 평화의 집 3층 식당에서 양측 수행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만찬을 함께한다. 김 위원장은 환송 행사를

마친 뒤, 북으로 돌아간다. 전 세계의 이목은 남북 정상의 합의에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핵심 의제에 집중된 회담"이라면서 "핵심 사항은 내일 남북 정상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핵화의 명시적 합의가 있다고 해도 이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정상들 사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지는 참모들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예측하기) 참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 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내외에서는 남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가능할 것인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 수뇌부급 인사들을 대거 차출한 매머드급 수행단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종전선언과 DMZ의 비무장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한 획기적 조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다음 달 또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불린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남북 합의의 여부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종석기자 tuim@kwangju.co.kr

### 남북정상 문재인-김정은 비교

문재인 (65) 대한민국 대통령	김정은 (34) 북한 국무위원장
1953년 1월 24일	1984년(추정) 1월 8일
김정숙	리성주
장남 문준용, 차녀 문다혜	장남 미선, 차녀 김주애, 3남 미상
경남고, 경희대 법학과	스위스 슈타인홀츨리 공립학교 (체학용 평양 귀환), 김일성군사종합대학 특설반
사시 22회, 사법연수원 12기,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대통령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 정부특보, 대통령 비서실장, 19대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현 당 중앙위원회 위원, 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현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현 군 원수, 현 최고인민회의 13기 대의원, 현 당 정부국 위원장, 현 당 위원장



오늘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는 공동경비구역 내 군사분계선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T2와 T3 사이 군사분계선앞에서 우리측과 북한측 경비병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여기서 처음 만나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남북교류사업 '훈풍'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이 광주·전남지역 남북교류협력사업에도 활기를 불어 넣어 주고 있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참가 등 최근 광주·전남이 추진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일부 구체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기치 아래 체육·문화·민간지원 등 세 분야에서 광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선수단 참가를 추진했다 실패한 광주시는 세계수영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경우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또 체육분야 교류로는 광주시 양궁선수단과 북한팀의 공동 전지훈련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 광주시 또는 제3국에서 훈련하는 방안이다.

문화분야에서는 2018광주비엔날레 북한관람단 파견과 올해 하반기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북한문화 특별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색이 열리는 동양화나 도자기, 유물 등을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는 '평화의 물결속으로'(DIVE INTO PEACE)라는 대회 슬로건에 맞춰 오는 9월 수영대회 'D-300'을 기념하는 남북 문화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D-100'을 기념하는 '남북 평화음악제'나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전야제에도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전남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 갯바위 문화타운과 진도운림산방 일원에서 열리는 세계 수목화비엔날레에 북한 작가와 작품을 초청할 예정이다. 한반도 남북 땅끝 전남과 북쪽 땅끝 함북 각 '땅끝협력'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통일정책을 수행한다는 구상도 추진한다. 1차로 함북지역의 산도 및 영·유아에게 전남의 미역, 이우식 재료 등을 제공하고 향유 산림·의료·농·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욱·오광록기자 jwpark@

### 광주·전남·부산·경남 국회의원 24명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힘 모은다

#### 30일 국회서 토론회 열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발목이 잡힌 경전선 직선전철화 사업이 이번엔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광주·전남·부산·경남 국회의원 24명이 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송정~순천 구간 직선전철화 사업에 뜻을 함께 해 주목된다. 호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영남의원이 발을 뺀 나섰기 때문이다.

26일 전남도와 김경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오는 30일 국회도서관에서 '남부 신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 사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경전선이 지나는 광주·전남·경남·부산 국회의원 24명이 공동 주최한다.

경전선 전철화는 전남 최대 현안이자 호남 차별의 상징으로 꼽혀왔다. 부산~순천 구간은 복선전철이지만 순천~광주송정까지는 단선비전철이다. 1930년 개통 이후 9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개선되

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산시 순천까지는 고속철 열차로 운행하다가 순천에서 저속디젤 열차로 바뀌어 운행하고 있다. 노선은 연결돼 있지만 영남과 호남으로 지역이 갈리면서 열차 운행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물류 이동에 병목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영남 의원들이 나서 전철화를 촉구하는 것도 물류이동의 흐름을 원활히 하자는 의미가 크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다. 지난 2014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지만 4년 넘게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경제성(B/C)이 낮다는 이유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호 교통연구원 박사도 전철화 사업 필요성과 파급 효과를 설명하고 8명 패널이 노선 신설 계획 등 사업 실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일보**  
신팔도유람-전북 부안 마실길 ▶18면  
임기영 복귀 KIA 마운드 활력 ▶20면

**무안공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주~우~욱~

## 일본 기타큐슈, 오사카, 마츠모토(나가노), 방콕, 다낭, 제주도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2018년 5월 13일(일)~ 정기편 운항 주 3회 출발 / 매주 화요일(3박4일) / 금, 일요일(2박3일)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큐슈 품격 특가** 단, 4회(5/8(화), 5/15(화), 5/22(화), 5/27(일))  
2박3일 기타큐슈(일 출발) 3박4일 기타큐슈 (특급 2박 / 고급 온천료만 1박)  
◆ 한정특가 499,000원 ~  
**399,000원** ~ ◆ 야마구치품격 699,000원~

**어버이날 특집 최고급 국내 효도 온천여행**  
[무안 ↔ 양양 직항] 강원도 속초, 삼척, 동해  
2018년 5월 5일(토) ~ 5월 7일(월) [항공 2박3일]  
1인당 458,000원~

**제주도** 2박3일(주중) 299,000원~, 2박3일(주말) 379,000원~

**지중해 크루즈 10일**  
(모스크바,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무안 ↔ 마츠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오마치 & 알펜루트 & 마츠모토관광]  
2018년 5월 18일(금)~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 금, 일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1:00) → 마츠모토(13:10) / 마츠모토(13:30) → 무안(16:20)  
[품격] 나가노, 마츠모토 알펜루트 관광 3일(고급료만 숙박) 일요일 출발 938,000원 금요일 출발 998,000원  
[품격] 나가노, 나고야, 마츠모토 알펜루트 관광 4일(고급료만 숙박) 화요일 출발 1,198,000원  
★ 알펜루트 전코스 관광(숙박 기간: 4/15~6/22)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 전 코스관광)  
★★★ 일본 최고의 절경 북 알프스 관광 ★★★  
★ 나가노현의 오오기사와역에서 다테야마 무로토까지의 대자연열 캐리비카, 고원버스, 로프웨이 등으로 이동하는 왕복 산악 루트를 달것으로 이동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만끽하며 5시간 산책 하는 코스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오사카 정규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2018년 4월 30일(월)~ 매주 월, 목요일(3박4일) / 수, 금요일(2박3일)  
◆ 오사카, 나라, 교토 2박3일 699,000원~ 출발일: 6/15(금), 6/20(수)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고베 3박4일 899,000원~ 출발일: 6/11(월), 6/28(목)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 5월 18일(금) 이후 주우욱~  
주 2회 출발 / 매주 화(3박4일), 금요일(3박5일)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4: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링크)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배개, 비디오 상영  
5월 가정의 달 3박4일 한정 특가 499,000원~  
[골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실속] 다낭 · 호이안 · 핫스프링 3박4일(화) 66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 다낭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규편(제주항공)**  
2018년 5월 2일(수)~ 매주 수, 목요일(3박5일) / 토, 일요일(4박6일)  
◆ 준특급호텔 649,000원~ ◆ 특급호텔 699,000원~ (6/20(수) 출발 확정)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동조: 여행경비 인 기준, 여행사별 가입회비상용: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법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비등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차/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경비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주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업(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착순, 한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